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성찬주일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성찬식	신앙고백 / 고전 11:23-36	다같이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228)	
특송	"이제는 내가 없고"	김은희
	결단의 기도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같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시편 137:1-9, 사도행전 3:11-26	다같이
말씀선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288)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부터 아동부는 지하 소예배실에서 YG는 친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현장예배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친교실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7월 7일 생명의 삶(10기) 이 종강합니다.
4. 7월 15일 수요일 오후 8시에 '목자목녀모임'이 있습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직접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6,122

예배할 때 행복한 우리는 성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미국내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전염이 확산 될 때의 수만큼 신규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에 빈틈이 생기고, 방심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뉴욕주의 일이 아니라, 타 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주정부는 그러한 주를 다녀오는 사람들은 뉴욕에 돌아오면 자가격리 2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울림교회는 교인들을 2개조로 나누어서 현장예배와 영상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롱아일랜드는 Phase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예배를 지금과 같이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7/5)부터는 아동부예배와 중고등부예배도 부분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전역의 상황이 악화되다보니, 어른예배에 참석하는 성인들도,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하는 학부모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현장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하기는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울림교회는 위생 안전에 대한 행정수칙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당 현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예배당 출입할 때 반드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배드릴 때나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런 위생 안전수칙을 지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강조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있는 예배드림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행복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